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시18:1)

주강총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94세계복음화지구총대회에 북한과 중국 대표단 참석키로

이중윤 위임목사는, 지난 2월 7일부터 세계교회협의회 제7차 총회 참석차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 온 북한 교회의 고기준 목사를 비롯한 4명의 대표단을 만나, 서울에서 열리게 될 '94세계복음화지구총대회에 북한 교회가 참

여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목사는 중국의 K H 텅(중국 삼자교회 대표) 목사 일행도 함께 만나 같은 뜻을 밝히고 이들과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세계 복음화에 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하였다.

'94세계 복음화 지구총대회는 '21세기 운동(AD 2000)'이 주최하며, 현재 202개국 5천명의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초청되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담반, 교사양성부 주일반 강의일정 변경 3월 2일 성경연구원 개강

3월 2일 저녁 7시 베다니홀에서 개강하는 성경연구원의 강의 시간이 일부 변경되었다. 각 부서의 장소 사용 관계로 교사양성부 주일반의 모든 강의를 30분씩 앞당겨져 12시 30분부터 시작한다. 또한 아담반의 본 강의는 15일부터 진행된다.

성경연구원은 개강일을 엿새

앞두고 있는 아담반을 비롯한 주간성경공부, 교사양성부, 찬양대원양성부에 많은 총현의 성도들이 참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실 있는 신앙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등록은 현재 사무국(소석관102호)에서 받고 있다.

세례식 거행

우리 교회는 지난 2월 20일 이중윤 위임목사의 집례로 제2차 세례식을 거행하였다.

수요 I부, II부 예배 시간에 거행된 이 세례식에서 40명이 세례를, 9명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또 45명이 학습을 받았으며, 입교한 사람은 14명, 개종한 사람은 4명이다.

피아노 봉헌 예배 21일에 드려



우리 교회는 지난 21일 저녁 9시 본당에서 교역자, 장로, 임광식 장로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이중윤 위임목사의 집례로 피아노 봉헌예배를 드렸다.

이날 봉헌된 피아노는 임광식 원로장로가 원로추대를 기념하여 90년 12월 22일에 특별 주문 제작한 것이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J군에게,

세 시간 자면 합격을 하고 다섯 시간 자면 낙방을 한다면 '삼당오락'을 책상 앞에 붙여 놓고 초조해 하던 자네가 막상 대학에 불합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 안타까운 마음 가눌 길 없었다네. 하지만 잠시 후에 떠오른 생각은 자네는 행복자라는 사실이었네.

자네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른 새벽마다 자네를 위한 어머니의 뜨거운 기도가 어김없이 하나님께 들려졌고, 아버님의 절도 있는 가정 교육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있으니 자네가 더 부러워 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 따지고 보면 수만명의 희생양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사회 구조와 교육 행정의 부조리가 자네처럼 열심히 공부하고도 불합격을 해야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한 것일세.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중에 있어야 하느냐고 원망하거나 시비하지는 말게. 희생양이 아름답듯이 자네가 실의에 빠져 있지만 말고 이때를 믿음으로 잘만 넘길 수 있다면 자네의 인생에 더없이 귀한 약이 되어 건강한 장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일세.

대개의 사람들은 넘어졌을 때, 걱정부터 하다가 세월만 허비하고 자학과 저주로 쓰린 결말을 보게 되지만, 정확한 인생의 목표를 세운 신앙인들에게 넘어짐은 성공의 지름길이고 신선한 자극제가 되는 법일세. '실패'란 하나님을 잃어 버린 자의 낙두리일 뿐 믿는 자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일세.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련의 의미를 꿰뚫어 볼 줄 아는 눈을 여는 것이 중요하네.

아울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도 필요하다네. 은사를 따라 기도하며 살을 깎는 각고의 노력 후에 인류 문화사에 크게 기여할 기회가 아직은 지나가지 않았다네.

일어나게.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허다한 응원자들이 자네 주위에서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게. 여호와 너시가 그대의 것이 되기를 기도하겠네.

2. 24

이 중 윤 목사

이중윤 위임목사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초청받아

이중윤 위임목사는 모교인 웨스턴신학교와 필라델피아 지역 집회를 인도하고, 귀국길에 시카고 지역 목회자 세미나와 집회를 인도한 후, 일주일 동안 신학교 특별 강의 3월 8일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의해 역삼역 에스칼레이터의 운행을 일시 중단합니다.

역삼역장

김창인 원로목사 예정대로 귀국

김창인 원로목사는 지난해 12월 27일 출국하여 북미주 지역에서 순회 전도 집회를 인도하시고, 예정대로 오는 2월 27일 귀국하시게 된다. 과다한 집회 일정과

과로로 인하여 잠시 로스앤젤레스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신 원로목사는, 전화로 이중윤 위임목사에게 교회의 평안을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하였다.

각 부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수양회 개최

교회학교는 지난 7일 대학부가 수양회를 개최한 이후, 각 부서별로 91년도 겨울 성경학교 및 수양회를 다음과 같이 계획, 준비하고 있다.

각 부서에서는 해당자들이 성경학교와 수양회에 모두 참석하여, 영의 값진 양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 각 부 겨울 성경학교 및 수양회 일정

부 서	일 시	장 소	강 사	주 제
영 아 부	2. 25~26	아 멘 홀	정연희 전도사 배옥인 전도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유 치 부	2. 25~27	소석관 205호	김정자 전도사 배옥인 전도사	믿음의 생활
초 등 1 부	2. 25~27	소석관 212호	정인선 전도사	믿음의 사람이 되자
초 등 2 부	2. 25~27	소석관 314호	황정순 전도사	자라가는 믿음 생활
초 등 3 부	2. 25~27	소석관 307호	최지혜 전도사	기쁨의 신앙 생활
초 등 4 부	2. 25~27	소석관 407호	장혜순 전도사	믿음의 분이 되는 어린이
초 등 5 부	2. 25~27	소석관 414호	김경성 전도사	주 안에서 승리 생활
초 등 6 부	2. 25~27	소석관 507호	정기봉 목 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어린이
청 년 1 부	2. 28~3. 1	총 현 기 도 원	김찬곤 목 사 정기봉 목 사	초대교회를 본받자
청 년 2 부	2. 28~3. 1	총 현 기 도 원	김정우 목 사	성경적 종말관
청 년 3 부	2. 28~3. 1	총 현 기 도 원	김창수 목 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에 바 다 부 학 생 반	2. 26~28	총 현 기 도 원	김성윤 목 사 임태주 전도사	믿음에 굳게 서자



성경 감해

이 중 윤 목사

옥합을 깨뜨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요12:1~8)

예수님의 수난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 12장 이하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난을 당하시는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은 전장의 5분의 2를, 마가복음은 전장의 5분의 3을, 누가복음은 전장의 3분의 1을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 데 들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그곳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 잔치는 나사로를 살려 주신 데 대한 감사의 잔치였을 것입니다.

11장 57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거든 고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 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한다는 것은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리지 않았다는 죄로 모두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와 같은 그들의 물질관에 의하면, 그것은 분명히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거룩한 낭비이며, 더 나아가서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이런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들은 올바른 신자라고 합니다.

2.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한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예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는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막 10:33).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말은 꼬투리를 잡고 헐뜯으면서 “내가 죽으러 왔노라”, “내가 죽으러 가노라”라는 말씀을 귀등으로 들어 넘겼습니 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단 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가까이 따라 갔을 뿐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일과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배우고 연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깊고 높은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예수님의 대리적 죽음을 앞에 놓고 고민하는 예수님의 슬픔에 자기도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위로하고 사랑한다는 표시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을 말렸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사랑해야

기 위한 공생애 기간 동안 유월절을 세 번 맞이합니다(요2:23, 6:4, 12:1). 이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한 기간이 5년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음식 준비에 분주합니다. 그리고 비싼 향유를 붓고 있는 자기 동생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어떤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흔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가롯 유다는 이의를 제기하며, 그것은 순전히 낭비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가롯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는 선과 구제를 앞세우면서 예수님을 돕는 체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방해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돕는 척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롯 유다와 같은 방해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양으로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발을 씻긴 사건이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마 26:6~13; 막 14:3~11). 여기에 나오는 시몬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누구의 집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포함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1.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

그러한 때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었습니다(요 12:3). 지극히 비싼 이 향유는 가롯 유다의 팔에 의하면, 3백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3백 데나리온이란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보고 있던 가롯 유다가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지 않고 낭비를 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이나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이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가롯 유다와 같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물질관이나 현실주의적인 감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마리아의 행동을 단순히 낭비라고 해서 안됩니다. 그녀의 행동은 낭비였기는 낭비였으나, 그것은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뭇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성도들이 십일조를 한다거나, 건축헌금, 구제헌금을 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

주님의 말씀 경청할 때 하나님의 뜻 깨달아

주님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간파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했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첫째,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곁에서 그분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자가 되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볼 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이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써,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마르다의 헌신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공경하며 헌신하였습니다. 마르다는 향유 못지 않는 봉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들지 않았을 때에는 불평이 가득했던 마르다이었지만, 살았 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육신을 드려 봉사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마리아와 같이 자기의 물질을 들여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마르다와 같이 자기의 몸을 바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하는 방법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봉사가 더 귀하고, 덜 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제7차 총회가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서 지난 2월 7일부터 20일까지 4천여 명의 세계 교회 지도자들의 참여 속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는 WC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학적 이해가 다르고 예배와 성례전의 방식이 다르다 해도 함께 모인다는 의미에서 교회사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찍은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함께 모여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1975년 나이로비대회 때부터 이미 '타종교와의 대화'라는 차원에서 모슬렘, 불교, 힌두교의 대표들을 초청한 WCC는 캔버라 대회에서는 더 이상 혼합 종교에 대한 우려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은 채 당연한 것처럼, 모든 대표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저들을 영접하였다.

이번 대회는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택함으로 지금까지 기독교 중심이던 주제가 성령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을 만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제가 기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때와 달리 특이한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타종교와의 대화분과위원장인 스리랑카의 웨슬리 아리아라 박사의 논문에서 저들의 속셈은 드러나고 말았다. "힌두교인의 기도는 누가 들으시나? 하나님은 다수인가? 시편 24편에 의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보전자가 되신다 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시라면 힌두교인도, 불교인도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 구원하시고 저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은 아니시다." 아리아라 박사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빙자하여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주제 강연자로 나선 한국의 젊은 여성 신학자 정현경 박사의 감쪽소

였다. 그녀는 무대에 호주의 원주민 두 사람과 한국의 풍물패를 섞어 놓고 춤을 추게 한 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만물을 새롭게 할 성령을 받으려고 모였습니다. 자신을 비움으로 성령의 길을 예비합니다. 호주의 토착민들은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 우리가 성령의 길을 준비하는 춤을 추는 동안 여러분도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몸과 마

음으로 피조물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영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다." 정 박사는 무대 중앙에 앉아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창호지에 쓴 초혼문을 읽어 내려갔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점동이 여종, 버림받은 애굽인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자기의 아내 밋세바를 빼앗기고 다윗왕에 의해 전쟁터에 나가 죽임을 당한 충성스런 군인 우리아의 영이여 오소서. 예수 탄생시 헤롯의 군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기들의 영이여 오소서. 십자군 전쟁때 죽은 백성의 영이여 오소서. 나치 학정 하에 가스실에서 학살당한 영이여 오소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군인들의 창녀로 끌려간 한국 여인들의 영이여 오소서. 마하드마 간디, 마틴 루

터킹과 같은 자유를 위해 싸우다 죽은 많은 영이여 오소서." 광주의 영, 아마존의 영, 땅과 물과 공기의 영을 부르던 정 박사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죽은 우리의 형제 예수, 자유자의 영이여 오소서."라고 했다. 그리고는 그의 손에 있던 영들의 이름이 적힌 창호지를 촛불에서 불을 붙여 하늘에 재로 만들어 날리었다. "한(限)의 영들로 가득찬 한국에서 나는 왔습니다."라는 말과 더불어 그녀는 무대 중

앙에 서서 들고 있던 논문을 감정을 들구어 읽어 내려갔다. 필자는 여기서 정 박사의 논문이나 평하는 것이 아니다. 이 논문은 WCC 제7차 대회의 주제 강연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회의 성격을 확실케 한 것이다. 그녀는 동양의 기(氣)를 가지고 성령을 설명했다. 더욱 놀란 것은 관인의 형상에서 성령의 형상이 왔다는 주장은 그녀가 기독교 신학을 논하는 지, 무속 신앙을 강의하고자 하는지를 의심케 했다.

하버드대학교의 스텐달 교수는 성령을 에네르기로 해석했다. 그는 이번 주제 해설집에서 물활론에서나 말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 일찌기 동서 교회의 분열이 성령론에 대한 견해차였기 때문이라 서인지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성

령유출설(Filioque) 문제는 언급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WCC의 허점이 여기서도 나타난 것이다.

분과 토의 주제 역시 신학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들이었다. 신학적 주제를 갖고 철저히 현실사회와 인간 중심적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나간 것도 WCC의 특이한 모습이었다.

제1분과에서는 "생명을 주시는 자여, 당신의 피조물을 보전 하소서"라는 소제목을 갖고 토론

했다. 여기서의 중요한 이유는 창조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자는 것이었다. 땅은 인간을 위한 것도, 인간의 목적(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땅을 소유한다기 보다는 청지기로 보호해야 하며, 다스린다기보다는 참여자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연과 하나님과의 관계 신학이 나오게 된다. 생태 위기에 책임을 지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여론이 없다. 만물이 새롭게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라면 만물이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자연신학'이 탄생케 된다.

"진리의 영이시여,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라는 소제목을 제2분과 토의는 개인의 변화보다는

구조약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제도 개혁이 자유의 출발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 진리는 정치, 경제 생활 속에서 찾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인종차별이나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의 자유도 여성 해방과 더불어 중요하게 다루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전쟁 산업을 제한해야 함으로 국민은 세금을 거부하는 운동이라도 벌릴 수 있다는 적극적인 대안도 내놓았다. 교회의 주 사역이 점차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분명히 볼 수가 있다.

"연합의 영이여, 당신의 백성들을 화해시켜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토의한 제3분과는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를 강조했다. 여기서는 진정한 영적 연합이 없이 물리적 연합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신앙적, 신학적 연합이 없는 WCC 운동의 한계성을 넘어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성령이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제4분과 토의는 변화의 갱신과 성화를 기원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관심은 가난한 자와 그들의 영성에 초점을 맞추어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었다.

WCC 제7차 총회는 세계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심을 신학적으로 포용, 해석했다는 점에서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 그러나 WCC의 신학적 표현은 미래 교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킬 것이 틀림없다. 한국 교회는 WCC가 맹 교단이든 아니든 이번 캔버라대회의 신학적 경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인 줄 안다. 이 시대의 남은 그릇이기처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적 반성과 신앙적 자각을 할 때가 온 것으로 믿고 이를 촉구하는 바이다.

WCC는 정말 혼합주의로 가려는가

- 세계교회협의회 제7차 총회를 보고 -

이 중 윤 위임목사

하나님의 사랑 빙자하여 그리스도의 유일성 거부

성령을 기(氣)나 에네르기로 해석

독자의 난

위대한 연출가

배꽃보다 솜털보다 더 하이얀
겨울 설악
나무에서 바위에서
은꽃 가루 춤을 추네
겨울은 참 즐거워라 창조주는 마술사

외로워서
갈매기도 숨어버린 겨울 바다
찬다못해 화가 치민 파도들은 옥쇄하네
흰 물살 하늘을 날고
그 소리 뒷산을 친다

억천만년 지하에서 꿈을 꾸던 성류동굴
교묘하고 신비하다
아름다운 지하 동굴
인간은 다만 피조물,
하나님은 위대한 분

우 기 전 장로

93세 노장답지 않게 얼굴에는 붉은 기색이 돌며 낭랑하고 또렷한 언어 구사는 듣는 이로 하여금 신앙의 내적 힘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였다.

방안에 들어 앉아 묵도를 시작한 얼마 후에 갑자기 방 안을 가득 메우며 전도사님의 힘 있는 기도가 울려 퍼졌다. 어지러운 사회상과 그 가운데서 걸어가야 할 성도들의 곤은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종들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외로운 가운

눈을 들여다 보곤 했다. 어렵고 엄하게 자라 양반 가문에 출가하여 남갑사, 홍갑사 새색시 옷을 벗기도 전에 외로운 기러기 신세가 되었으니 그 아픈 가슴이야 뉘 알았으랴. 재혼은 막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어서 양반 가문의 만여느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로운 그녀에게 서양에서 온 여자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은 그는 예수

‘여지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고 평생을 겸손하게 사신 연로하신 그의 입술에 하나님은 지금도 온갖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주신다. 그의 기도는 한이 없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친척, 백성,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세계 비행기가 뜨는 곳이면 어디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알 수 없는 신비는 93세의 고령에 돋보기를 쓰지 않고 성경을 읽으신다는 사실이다. 장로

■ 탐방 - 김연순 원로전도사

35년간 주님과 교회 위해 헌신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모두를 건축헌금으로



태 뜻밖의 방문객을 만나 기뻐 뛰면서 대면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마쳤다.

93세 고령에 기억력도 최잔하여 자리만 보전하고 누워 계시지 않지만 전도사님은 75년 전의 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영상을 보듯이 읽어 내리셨다.

18세에 유교 가정으로 출가하여 아들 하나를 얻은 3년 후에 남편은 질병으로 돌아가셨다. 철없는 3살짜리 어린 것이 몸져 누워 있는 아빠의 머리를 흔들며 “아빠, 맘마 먹어.”를 되뇌었으나, 어린 것의 소망에도 아버지는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운명하시니 그해 전도사님의 나이 21세 꽃다운 시절이었다.

13살 때부터 세복 모시 쓰개치마로 얼굴을 가리우고 다녔으나, 일본 사람들은 뚫어진 구멍으로

나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시댁에서는 혼자 된 며느리라 막을 길도 없어 묵인하셨다. 양반 가정에서 자라났으나 어쩐지 양반의 행색이 싫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았다. 끝내 5살짜리 아들을 원산에 있는 작은 데에 맡기고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입학했다. 가끔 아들을 만나러 오실 때는 어린 것의 손을 잡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산다.”를 노래처럼 들려주었다.

신학교를 마친 후에는 온성에 있는 교회에 부임하셨고 경찰병원에도 근무하시면서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1·4 후퇴시에 아들 가정과 함께 남하하여 한때 부산에 머무시다가 53년 충현교회가 설립된 그해에 충현교회로 부임하셔서 65년 은퇴하기까지 35년간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다.

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성경을 읽으시며 기도하시며 혼자 다 진행하신다.

공로 전도사가 되신 후에 교회에서 계속 사례비를 받자 송구하고 감사하여 89년부터는 사례비 일체를 도서관의 도서관비로 헌납하셨고 금년부터는 사랑의 집 등 건축헌금으로 헌납하시기로 하셨다. 후손을 아끼는 마음과 불우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의 헌신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리라.

슬하에 아들(우리 교회 김기정 원로장로) 내외와 손자손녀, 증손자손녀 등 모두 10여 명을 두고 있다. 전도사님의 남은 생애가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복되시기를 기원하며 그의 기도가 이루어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한다.

■ 위원회를 찾아서 - 제2교육위원회

교사들의 자질 향상과 교육 평가에 역점

우리 교회의 세기둥은 교육, 선교, 구제이다. 그 중에서도 첫째가 교육이다. 사람의 신체 가운데 심장부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2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차생 장로, 지도 김해규 목사)이다.

제2교육위원회는 고등부를 수료한 청소년으로부터 소망부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성도들의 신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청년기는 1~3부로, 장년기는 1~4부로 계층간 세분화 하였다. 또 가정을 새로 이룬 성도들이나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들을 위하여 새가정부, 새가족부도 제2교육위원회 산하에 두고 있다.

특히 91년부터는 종전의 직장 전도교육부를 청년 1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직장 청년들을 흡수하고 있으며, 장년 1~4부는 신학교 교수들이나 협동목사들이 지도를 맡고 있어 타교회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제2교육위원회 제적 학생수는 2,371명(2월 3째주 현재)이지만 91년도 목표는 5,000명 돌파를 정하고 전교인 성경 공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387명의 교사들은 학생 심방과 반별 친교를 이미 완료했고 각 부마다 교육 목표 구현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땀과 눈물을 쏟아 수고를 다하고 있다. 특히 교사

양성부를 수료해야만 정교사 자격을 주며 매주 일 교사 출석을 97퍼센트의 합격점은 뜨거운 헌신의 열매를 보여 주고 있다. 학생들은 각 부마다 자율적인 면려 활동을 통하여 부흥과 전도에도 큰 몫을 한다.

총사령탑인 제2교육위원장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경건의 훈련을 계속함으로써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헌신적인 교회 봉사자 양육을 위해 교사의 자질 향상과 교육 평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재편찬위원회가 진행중인 교재 집필이 완성되면 한국 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5월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겠습니다.”라고 한마디.

미래 지도자를 위한 바른 대학 생활 안내가 막을 내렸고, 한·미·일 연합 수련회 계획이 추진 중이다. 동기·하기수양회를 통해서 영적 각성, 사랑과 진리의 힘을 공급받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추어 강물처럼 흐르는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거둘 것을 바라보면서 각 교실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있는 모범적인 교회의 교회학교로 더욱 전진할 것이다.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을 보존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세우고 약속의 땅으로 진군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26:2).

결론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초래한 결과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훈련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답

1. “민수기”라는 책명은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습니까(민1:2, 26:2)?
2.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고생스런 광야 생활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토의

1.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셨나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결심한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2.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기도

1. 믿고 순종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목회자세미나, 충현제자훈련, 충현복음심포지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걸프 전쟁의 종식과 회교간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다락방

제 9 과 훈련받는 하나님의 백성

본문 : 민 14 : 26~38

찬송 : 382, 493

본문연구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민수기는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거치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변해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인도와 백성들의 불순종(26~27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여행할 수 있는 모든 축복과 훈련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 가지 못했습니다.

2. 하나님의 진노와 백성들의 시련(28~38절)

그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유리방황하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3. 새 세대의 새 출발(31절)